

도시재생 동향 및 R&D 사업의 추진현황

Trends and State of Urban Renaissance R&D



임서환*
Seo-Hwan Lim

1. 도시재생의 동향

도시에서 우리 삶은 일정한 질적 양적 수준의 물리적 공간 환경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물리적 공간 환경은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반면 우리의 활동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공간 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한때 우리의 활동에 요긴하던 도시의 구조물과 시설물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장애가 되고 버려지고 쇠퇴하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 단순한 물리적 정비에서 벗어나 재생, 재활성화 개념의 접근, 즉 물리적 차원 외에 경제, 사회, 문화 차원이 복합된 접근을 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쇠퇴해가는 도심의 재활성화나 쇠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용도기능의 개발, 도심쇠퇴에 따른 실업 등 도시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재개발이 주를 이룬다. 이들도 19세기부터 1950년대까지는 철거 재개발(slum clearance)이 위주였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는 단순 철거 재개발이 아닌, 수복(rehabilitation), 그리고 1980년대 이후 물리적 환경의 개조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삶의 여건을 회복하는 재생(regeneration), 재활성화(revitalization)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경제기반 붕괴와 함께 대두되는 실업, 빈곤, 일탈행위 등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도시의 삶의 여건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우리나라도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등 모든 위계의 도시들이 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을 개발하여 지역의 재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처별로 지역과 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많은 성과도 있지만 그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우선 여러 정책들이 각기 유리된 채 진행되고 도시의 공간계획으로 통합되지 못하여 그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 또 중앙정부의 주도로 진행됨으로써 사업을 현지

화, 토착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도시 침체현상과 그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연구가 빈약한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 새로운 도시공간환경에 대한 수요를 신도시, 신시가지 개발로 충족해온 결과, 도심기능이 신개발지로 옮겨가 구시가지, 재래시장을 위시한 구도심의 상권이 침체되는 등 기존 도시가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도시재생은 이처럼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쇠퇴하는 기존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또는 창출하고 도시의 공간환경을 쇄신함으로써 그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개발연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침체하는 기존 도시들을 소생시키고 그 물리적 환경적 품격을 높이는 일이 도시정책의 주된 과제가 되고 있다. 도시재생의 문제를 도시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진단하고 재생의 전략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2. 도시재생 R&D 사업 추진 현황

2006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 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을 수립하여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 창조자”라는 비전으로, 향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가가치가 높고 해외 진출이 유망한 10대 전략 프로젝트 VC-10(Value Creator-10)¹⁾을 선정하였다.

도시재생사업단은 사전기획연구를 토대로 한 도시재생 R&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 12월에 설립되었고,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67인의 전문가들로 상세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연구과제와 그 시행계획을 작성하였다. 그 후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사업단의 4개 핵심주관기관이 선정되어 2007년 11월부터 1차년도 연구를 착수하였다. 이어 제안공모과제 연구기관들을 선정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도시재생사업단 단장
shlim@jugong.co.kr

1) VC-10 사업단으로는 도시재생, 지능형 국토정보, U-Eco city, 스마트 하이웨이, 초고층 복합빌딩, 해수담수화 플랜트 등이 포함된다.

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단의 연구조직이 그 모습을 다 갖추게 되었다. 현재 각 핵심주관기관은 3차년도 연구를 시작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R&D사업은 2014년 6월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단은 “G7 국가 수준의 도시재생 경쟁력 확보”라는 비전하에, ① 도시재생 기술수준 제고, ② 도시재생 사업 효율성 제고, ③ 환경오염 및 에너지 사용 저감, ④ 사회적 지속가능성 증진이라는 4가지 목표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도시재생사업단의 연구과제는 크게 4개의 핵심과제와 총괄과제로 구성되어 각각 핵심주관기관과 도시재생사업단이 주축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연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쇠퇴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및 지원체제 개발(1핵심과제)

국가적 차원의 도시재생전략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사업을 기획·설계·건설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도시의 물리·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 상태를 진단하여 도시쇠퇴의 유형별로 재생의 테마와 접근방법, 국가적 지원조직 체제와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장·단기적 국가의 실행계획과 실행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1핵심과제인 “쇠퇴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및 지원체제 개발”은 도시의 쇠퇴현상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쇠퇴한 도시 혹은 지역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연구로서, 도시쇠퇴 실태조사 및 해외 도시재생시스템 조사분석, 쇠퇴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개발, 도시재생 법제 및 지원체제 개발을 세부과제로 하여 연구 중에 있다.

2.2 사회통합적 주거공동체 재생기술 개발(2핵심과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거지 정비사업이 물리적 환경정비에 중점을 두고 고층아파트 중심의 개발에 치중, 주거문화의 획일화, 정주의식 약화, 공동체 해체 등을 초래하였다.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의 양상과 원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 연구와 사회통합적 도시재생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 주도적 또는 시장 주도적 도시정비를 지양, 주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에 의한 근린재생내지 도시재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핵심과제인 “사회통합적 주거공동체 재생기술 개발”은 도시공간의 근간이 되는 주거지를 대상으로 실용화 가능한 기술 및 기법을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통합 테스트베드에 적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주거지 정비기법 개발, 근린재생 기반 구축

및 운영기법 개발, 저비용 주택기술 개발을 세부과제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3 입체·복합공간 개발(3핵심과제)

도시공간의 구성 양식이 평면적인 것에서 입체적인 것으로, 용도분리에서 용도복합으로, 고속교통망 등 지상·지하 인프라와 지상건축물이 일체화하는 쪽으로 변화에 따라 토지 및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공간 체계를 개편하고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입체·복합공간 건설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구조물 건설에 초점을 맞춘 재래식 기술은 한계가 있으며 전문화된 분야별 기술영역을 넘어선, 도시재생의 맥락에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3핵심과제인 “입체·복합공간 개발” 연구는 한정된 도심에서 다양한 기능을 입체적으로 혼합하여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구성기법 및 건설기술을 개발하고자 4개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세부과제로는 입체복합 사업화 모델 개발, 입체복합 공간 계획 및 설계 매뉴얼 개발, 입체복합 공간 구조 및 공법 개발, 메가프로젝트 건설관리 시스템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2.4 성능·환경 복원기술 개발(4핵심과제)

현대의 도시는 인류의 삶에 유례없이 커다란 편익을 준 반면 오염 부하 증가, 구조물의 노후화, 기타 사회·경제적 위협으로 인한 환경성과 안전성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생활의 안전, 도시경제의 안전, 그리고 재해로부터의 안전과 성능·환경복원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경제성, 자족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러한 재생도시의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시재생 성능·환경복원의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라인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4핵심과제인 “성능·환경 복원기술 개발”에서는 도시의 구조물 성능복원, 환경복원, 복합에너지, 방재 및 안전에 대한 기술과 시스템 패키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합하여 도시기반시설 재생 솔루션 패키지로 상용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생도시를 구현하고자 한다. 그 세부과제로는 구조물 성능복원 기술 개발, 도시환경 복원 기술 개발, 도시 복합에너지시스템 개발, 도시 방재 안전 기술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2.5. 총괄 과제

총괄과제 “도시재생 기반지식 구축 및 실용화 전략”은 도시재생사업단 과제 전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과제로서, 전문화·세분화된 핵심과제에서 다루지 못하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내용을 다루고자 도시재생사업단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DB 구축 및 정보화 방안 연구, 한국형 도시재생 패러다임 설정 및 국가 중장기 전략, 도시재생 역량강화 방안, 도시재생사업단의 파급효과 및 성과분석, 테스트베드 실행 및 실용화 방안 연구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단 연구과제 간의 상호연계성을 확보하고 연구 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맺음말

도시재생 R&D사업은 다양한 전문분야별 연구단위로 전체 연구진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 R&D사업은 단일한 제품이나 성과품을 개발하는, 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건설기술 개발사업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질적이며, 특히 이 점에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제도·계획·설계에서부터 다양한 공종이 복합된 건설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한 각 분야의 연구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학제적 연구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또한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각 단위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통합적으로 테스트함으로써 실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둘째, 도시재생기술은 유형의 실체로 존재하기보다 실용화 과

정을 거치면서 재생의 제도, 전문 인력의 숙련도, 노하우 등으로 내면화되는 것인 만큼, 도시재생기술 개발 사업은 그 연구개발의 과정이 곧 성과를 실용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테스트베드 사업은 개발된 특정 유형의 기술을 단순히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슈를 도출하고 과제화 하는 학습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끝으로 도시재생 R&D사업은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초점이 신도시, 신시가지 개발로부터 장차 기존 도시와 시가지로 옮겨가는 전환기에 도시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고 기반기술을 확고히 구축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단 도시재생 R&D사업의 참여연구진 뿐만 아니라, 민간학계 관련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건설교통부,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 보고서,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2006.
2.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도시재생사업단 사전기획연구(최종보고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6.
3. 도시재생사업단, 도시재생사업단 상세기획연구(최종보고서),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7.
4. 임서환, “도시재생 R&D 사업의 과제와 추진방향,” 한국도시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후기산업사회의 종합적 도시재생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2007.
5. 임서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제언,” 도시정보, 통권 311호 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8.

◆◆◆ 특집 예고 ◆◆◆

| 월 호 | 특집 주제 | 특집 주간 | 원고 마감 |
|------------|-----------------------|---|--------------|
| 2008년 9월호 | 고강도콘크리트 내화 성능 | 한천구(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cghan@chongju.ac.kr | 2008. 07. 21 |
| 2008년 11월호 |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설계기준 적용 사례 | 조의경(현대건설(주)기술개발원) ekcho@hdec.co.kr | 2008. 09. 22 |
| 2009년 1월호 | 콘크리트구조물의 최신 보강기술 | - | 2008. 11. 17 |